

여수+순천+광양
장흥 + 강진
목포+무안+신안

통합 노력 활발 정부 지원 절실

전남 동부권과 무안반도, 장흥·강진군 등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주민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인센티브 제공 등 중앙정부 차원의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 중부권의 침체를 벗기 위해 장흥군과 강진군을 통합하려는 사회단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강진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0일 '가칭 장흥·강진 통합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김정권 번영회장)'를 결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또 무안반도통합추진위원회가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무안과 신안주민 7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민 찬성을 지난 2005년에 비해 11.1%포인트나 상승한 것이어서 무안반도 통합 추진에 탄력이 불어 됐다.

여수시와 순천·광양시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통합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 여수세계엑스포'의 성

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동부권 자체들이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따른 실익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군의회를 비롯한 무안군지사단 체장들은 지난 11일 '일체의 통합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으며 강진과 장흥지역 일각에서도 "양 지역이 통합되더라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때문에 행정구역 통·폐합이 성

사될 경우 교부세 증액과 같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유인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이 통합할 경우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있어 사전에 행정자치부가 통합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무안반도의 경우 통합이 성사되면 연간 300억원대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통합에 따른 세부 지원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방종합



나주 종합사회복지관

15년째 노인·아동복지 '열정'

무료급식·도시락 배달

영세민 자녀 학습지도

나주 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선규)이 노인 및 아동복지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사진>

지난 92년 1월 설립된 나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끼니 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탁물 서비스와 각종 여가문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하루 80여명의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거동이 불

편한 100여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특히 영세민 자녀 3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도하고 건강 특강 등 각종 여가 생활지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김막례(여·74)씨는 "복지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막막한 독거 노인들이 많다"며 "사소한 것에서부터 먹고 자는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선규 관장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건이 따르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아동복지 사업에 독지가의 협조가 절실히"고 밝혔다.

/장흥=김용기자 kykim@

연말 청소년 선도 캠페인

'장흥경찰 마음놓고... 추진협'

'장흥경찰서 마음 놓고 학교 가기 추진협의회'(회장 서선환)는 지난 10일 장흥읍 중앙로 일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발연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연발연시를 앞두고 청소년 탈선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30여 명의 회원들은 '청소년을 선도합시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배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돌며 준법영업

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수렴해 실시설계에 반영했다.

또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해당 면 기술직들을 보조감독으로 임명했다.

화순군은 앞으로 제 3차 오지 종합 개발사업(2005~2009)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8개 면주민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30억 2천800만원을 투입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삼호읍 성탄트리

영암군 교회협의회가 지난 9일 지역 관문인 영암읍 산림조합과 삼호읍터 미널 앞에 성탄트리를 설치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벌교 주먹'은 항일운동에서 비롯"

벌교읍지 편찬 추진위, 100년만에 진실 밝혀

는 이를에 대한 '정의의 주먹'으로 표출됐다.

이후 자유당 집권 시기 청년정 치단체인 '무민동 청년회', 멕시코 올림픽 관투 대표 선수를 지낸 박

인성 등 수많은 '벌교 주먹'의 전설 들이 나타났다.

벌교읍지 편찬 추진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구술자료와 사진, 일제시대 당시 발간된 신문 등을 통해 잊혀져 가는 지역 역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시작한지 1개월여 만에 완성된 것이다.

담벼락에는 울타리 너머 꽃 위를 날아다니는 벌과 나무 등치 너머 다람쥐가 강아지를 반기는 모습 등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 오가는 초등학생과 주민들에게 반기운 길이 되고 있다.

류진희 교사는 "아이들에게 밝고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싶었다"며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펴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얘! 오리·강아지 좀 봐, 귀엽지"

강진 마량초교 담벼락 동물 벽화

등교길 초등생·주민들 '싱글벙글'

학교 50여m의 담벼락에 고양이, 강아지, 다람쥐가 뛰노는 파란색 벽화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사진>

강진 마량초등학교 신재혁(8)군은 요즘 학교 가는 길이 더욱 즐겁다. 그동안 회색빛이던 마량초등

학교 50여m의 담벼락에 고양이, 강아지, 다람쥐가 뛰노는 파란색 벽화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사진>

이 벽화는 지난 5월부터 이성범 교장과 류진희 교사가 틈틈이 시간을 내 파란색 밀그림을 그리기

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상 크루즈 선 운항과 고흥~여수간 연륙교가 건설되는 영남면 우천 일대에 온천공원 휴양단지 조성 등 59개의 다양한 시책들이 제시됐다.

특히 ▲나로도 우주센터 인근 어촌에 민속전시관 건립 ▲해창만 놀이공원 조성 ▲녹동항 레이저쇼 오색 분수대 설치 ▲크루즈선박을 이용한 해양관광호텔 등 각종 아이디어도 선보였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고흥군, 세계박람회 연계 시책 밟굴 나서

관광객 유치 크루즈선 운항·온천공원 조성 등

고흥~여수간 크루즈선 운항과

2012세계 우주항공 박람회 개최 등 고흥군이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책

고흥군은 12일 실·과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연계한 고흥군 밭전 아이디어 밟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계박람회 방

